



CBS, 한국교회 지킨다

신천지 대응 교육용 DVD 전국 교회에 배포

CBS(사장 이재천)가 공격적 활동을 펼치며 교인과 국민을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 이단사이비집단의 실체를 폭로하는 DVD <신천지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제작해 전국교회 무료배포에 나섰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그동안 교인 신분으로 위장한 채 은밀히 교회에 침투해 교회와 교인을 현혹하는 이른바 '추수꾼 전략'을 펼쳐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경계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한 교회가 신천지 신도에 의한 방화로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 주차장이나 주변에서 전단지들을 살포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신천지는 또, 문화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서면서 이단집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S기독교방송은 지난 1월 신천지의 폐해와 이단성을 짚어보는 집중보도 시리즈를 마련한데 이어 심층인터뷰 프로그램 '포커스인'을 방송하는 등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례와 대처요령을 심층보도하고 있다.



C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교회에서 이단세력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신천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DVD를 제작해 전국교회에 무료보급하면

DVD에는 신천지 분별과 대처방법을 다룬 보도특집과 이단전문가 대담이 수록돼있어 교회나 선교단체, 구역회, 속회, 가정에서 다



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CBS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정통신앙에 도전하는 이단 사이비집단의 행태를 적극 보도해 수차례 항의소동과 법적 소송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신천지 DVD 문의=02-2650-7952

CBS 이재천 사장 인터뷰

스마트 미디어가 세상을 휩쓸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스마트 TV가 안방을 노리고 있다. 소셜 미디어, 태블릿PC 등 이른바 '미디어 3.0시대'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무더기 신규 TV채널 허가로 우리나라 방송계는 마치 태풍전야를 방불케 한다. 위기감마저 감도는 방송환경에서 CBS의 비전과 활로, 성장과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방송을 이끌고 있는 이재천 CBS사장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장의 표정은 결코 어둡지 않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CBS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CBS를 더욱 크게 쓰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로 승부하자', '위기가 곧 기회다', '우수한 CBS인력으로 못할게 없다'며 자신감을 표시한다. 이재천 CBS사장이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쓰는 CBS의 희망은 무엇일까.

“스마트 미디어, CBS도약의 기회”

스마트 노컷TV 개국, 음악FM 확대, 목동사옥 재개발 추진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CBS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비전은 무엇인가.

“CBS는 어느 언론사보다 앞서서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대비해왔다. 모든 뉴스가 모바일에서 제작편집이 가능하게 된지 오래다. 현재 스마트 폰에 CBS어플과 라디오 레인보우, 미디어경정 어플서비스를 하고 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4시간 '스마트노컷TV' 방송을 시작한다. '스마트 노컷TV'는 공중파 TV와 인터넷, 모바일의 경계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찾아서 보고 싶은 TV콘텐츠'로 승부할 계획이다. 스마트 미디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

-CBS 목동사옥 재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됐는지 궁금하다.

“C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지 않다. 특임분부를 구성해 자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목동 사옥을 재개발해 '부채없는 클린 CBS'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사업방향은 가닥이 잡힌 상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직원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CBS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

-CBS의 글로벌 미디어 전략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현재 CBS는 TV 26개, 라디오 32개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는 CBS 미주본부와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텍사스 등 6개의 지사를 설립했다. 곧 미국 최대 위성채널인 디렉트 TV와 Timewarner 케이블 TV, IPTV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CBS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글로벌 CBS'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CBS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

-최근 CBS라디오가 뜨고 있다. 부산에 CBS 음악FM이 개국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음악FM을 세울 계획은 없는가.



“CBS FM 청취율이 수직상승해 힘이 난다. CBS 제작진들이 탐과 창의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부산에 음악 FM을 개국하니, 다른 지역에서도 세워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대구와 광주, 전주, 대전 등 대도시부터 우선 음악FM을 세울 계획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CBS 교회성장 프로젝트

전도컨퍼런스 & 행복한 동행 폭발적 반응



인천계산교회에서 열린 행복한 동행 (강사 장경동 목사)



대구대명교회에서 열린 전도컨퍼런스 (강사 김문훈 목사)

CBS의 교회성장 프로젝트 '전도컨퍼런스'와 '행복한 동행'이 교회부흥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BS가 교회부흥에 성공한 대표적인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강사로 초청해 갖는 전도컨퍼런스는 2010년 4차에 걸쳐 전국 19개 교회에서 열려 연인원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전도컨퍼런스를 통해 전도의 열정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전도 계획들이 세워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며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전국 권

전도컨퍼런스 연인원 2만여명 참가... 구체적 전도계획 세워 행복한 동행 지난해 14개 교회서 개최, 새 신자 정착률 높여

역별로 확장해 총 5차의 전도컨퍼런스가 열린다.

전도컨퍼런스가 전도를 위한 동기 부여와

열정을 일으켜주는 프로그램이라면 행복한 동행은 초청된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장경동 목사, 김문훈 목사 등의 강사들과 현미 권사 등 인지도 높은 가수들이 출연하는 행복한 동행에는 2010년 한 해에만 14개 교회에서 열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행복한 동행 역시 올해도 매달 한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역사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BS, 목회자 자녀 선교장학생 25명 선발

뉴질랜드 오클랜드 에딘버러 칼리지서 6개월간 연수

200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현재까지 300여명 혜택

CBS는 2월 9일 서울 목동 CBS 본사에서 '2011년 상반기 뉴질랜드 선교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충남 보령시 늘푸른 성광교회 장한별 군 등 25명에게 뉴질랜드 해외연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CBS는 농어촌 등 국내외 오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매년 두 차례씩 현재까지 300여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선발해 해외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목회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선교에 비전이 있는 세례교인 이상의 대학생도 함께 선발하여 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에 CBS 장학생으로 선발된 25명은 3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에딘버러 칼리지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며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신앙안에서 함께 공부하며 믿지 않는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료급식과 선교콘서트 등의 봉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훈련도 하게 된다.

섬기는 지도자 키운다

예수의 섬김 리더십 공부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
1기 정·재계 등 인사 78명 수료... 2기 3월 8일 개강

크리스천 CEO 등이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인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Christian Leaders Academy)' 2기가 3월 8일 개강했다.

CBS가 인간개발연구원과 함께 주관하는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제2기 강사진으로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송자 명지대이사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조순 전총리, 김영길 한동대총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석학들과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다. 또 정·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50여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CLA' 2기는 오는 7월 12일까지 5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되며 커리큘럼은 단순한 MBA 경영교육에서 탈피해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영성체험 △국내외 선교봉사 △찾아가는 CEO 강의 △문화와 나눔 실천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진다.

한편, 안산 품의교회 김학중 목사 인도로 2월 15일 수료식을 가진 CLA 1기는



정몽준·이인제 의원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엄기영 전 MBC사장, 김종희 전 금감원 부원장, 김광석 참존 회장 등 각계 크리스천 리더 78명이 5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장을 받았다.

CBS 직원들의 이웃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따뜻한 세상 만든다

■ CBS 전직원 영성훈련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직원 영성훈련’에 지난 연말까지 41명의 직원들이 참가하고 돌아왔는데 영성훈련을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리나면서 CBS에 신앙의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만나 BTD, 사랑의 동산, 골든 TD, 모세골, 다일 아세찾기, 예수원 등 2박3일 또는 3박4일의 다양한 영성훈련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다녀오게 되는데, 다녀온 직원들마다 좋은 신앙훈련이 되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60명 등 총 130여명이 다녀오도록 계획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서울 본사직원의 절반 정도가 영성훈련을 마치게 되므로 사내 분위기가 더욱 밝고 따뜻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직원 영성훈련’은 3년 동안 전직원이 한 차례씩 훈련을 받도록 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영성훈련에 다녀온 직원들이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그때 다짐한 계획과 비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매일 ‘영성훈련 참가자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 급식봉사활동 참여

매년 CBS 직원들이 추수감사절 예배 현



직원 영성훈련 만나 BTD·사랑의 동산 등... 지난해 41명 참가 사랑의 쌀나눔 추수감사 헌금모아 독거노인·노숙자 점심제공

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부평역에서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함께 12월 2일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재천 사장과 상무, 본부장 등 간부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약 700여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일일이 식판에 음식을 담아 식탁까지 가져다드렸고, 드신 후에는 따로 준비한 떡을 한 덩이씩을 나눠드렸다.

한국교회 ‘콘텐츠뱅크’ 콘텐츠 나누기 운동 전개

콘텐츠 홍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플랫폼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독교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 콘텐츠들은 공유되지 못한 채 한번 쓰고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기독교문화를 모으고 나누면서 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CBS가 콘텐츠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사업으로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집단의 실체를 밝히는 동영상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CBS 콘텐츠뱅크는 CBS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 교회 소유의 뛰어난 콘텐츠를 모아 재가공으로 완성도를 높인 후 작은교회와 세계 선교지 등에 배포한다. 기독교문화가 세상문화를 견인하고 어두운 사회에 빛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 계획이다.

CBS 애청자 간증문

“나는 행복한 배달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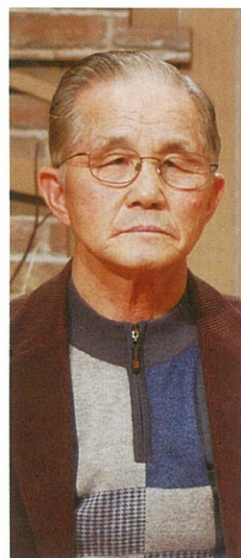
‘새롭게 하소서’ 테이프 보급 박정근 장로

저는 33년전 고국을 떠나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75세 노인입니다. 새롭게하소서 초대 MC를 맡았던 권규석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테이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의 진솔한 간증이 제 얘기 같아서 눈물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혼자 듣기가 아까워 우리 가계에 식품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복사한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왔습니다. 감사편지에 어떤 분은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다! 저는 전도용으로 너무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 테이프를 만들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2년동안 10만개 이상 테이프가 건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용은 우리 가족 3대가 모아서 조달했지요. 테이프 하나가 심각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날마다 신이 났습니다.

페인트공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을 여럿 둔 사장이 됐지만, 지금도 일을 하러 갈 때는 옷 속에 테이프를 품고 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테이프를 건네지요. 불교신자인 고객한테 테이프를 건네다 ‘일이나 하지 그런 짓 하고 다니냐’는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를 교회 부흥집회에서 만났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요. 바로 그 테이프 하나가...



사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또래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지계를 지면서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글도 신문을 읽으면서 깨우쳤지요. 그런 제가 테이프 복사를 대량으로 하기 위해 영어로 쓰인 장비를 다루려다보니 영어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새생활선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새롭게하소서 방송 만들고 주간 베스트를 선정해 380명의 간증을 올려 놓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독일에서도 흠뻑 방문해 은혜와 감동을 나눕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저는 새롭게하소서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건강 주셔서 아직까지 세계를 다닐 수 있는데 제 배낭 속에는 항상 새롭게하소서 CD가 비상식량처럼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한 사람을 위한 영혼의 비상식량...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나는 행복한 배달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독일에서도 흠뻑 방문해 은혜와 감동을 나눕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저는 새롭게하소서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건강 주셔서 아직까지 세계를 다닐 수 있는데 제 배낭 속에는 항상 새롭게하소서 CD가 비상식량처럼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한 사람을 위한 영혼의 비상식량...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나는 행복한 배달부’입니다.

막장드라마 시청률 추월, CBS 성서학당 떴다

2007년 10월 22일, CBS TV에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가 조용히(!) 등장했다.

신약과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전부 마스터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가진 프로그램, 바로 <CBS 성서학당>이었다. 지금까지 총 14명의 강사가 천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 결과, <CBS 성서학당>은 CBS TV 및 기독교계 전체 방송사 프로그램 중에서 1년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큰 사건’을 일으켰다. (TNS 스카이라이프 전체가구 대상 2010.1.1~2010.1.2.31 사이 조사) 말씀의 홍수 시대에 <CBS 성서학당>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CBS 성서학당>이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영적인 효자손’ 역할, 그리고 기독교에 물든 우리 한국교회에 비판을 야기하지 않는 ‘사랑의 회초리’ 역할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CBS성서학당>을 통해 은혜와 진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이 필요하다.

■ 매주 월-토 주 6회 방송. 오전11시, 오후 11시(재) 방송.

‘최인혁의 가스펠 아워’ 인기몰이 세계한인기독교방송대상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수상

은혜와 사랑,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해주는 CBS 라디오 <가스펠 아워>가 올해 기독교문화발전에 기여한 프로그램에 수상하는 제3회 세계한인기독교방송대상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제작진은 “찬양문화발전, 크리스천 유머 활성화, 크리스천 공연문화 확대, 가스펠을 통한 복음전파 등 큰 그림을 그리며 만들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인정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CBS 라디오 <최인혁의 가스펠아워>(매일 밤 10:05 ~ 12:00)는 기독교음악프로그램으로서 푸근한 복음성가로부터 세련된 CCM까지, 웅장한 클래식부터 흥겨운 힙합까지 시대와 장르를 초월, 다채로운 찬양을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새롭게 하소서' 30주년 홈커밍데이 대성황 “세상을 새롭게” 선교적 사명 뜨겁게 다짐



대외그룹 채의승 회장, 마이클조 선교사.



출연 1만명 간증의 물결... 역대 출연자 700명 참석 뜨거운 감동 전해 채의승 회장·마이클조 선교사 감동의 신앙고백... '선교의 도구' 다짐

새롭게하소서 30년 세월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장애를 딛고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다. 탕자처럼 방황했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던 이들이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무려 1만명의 사람들이 변화의 길목에서 새롭게하소서를 만났고, 방송에 소개되면서 그들은 더욱 놀라운 간증의 세계로 안내되었다. 그 '새롭게 하소서'가 지난해 12월13일 출연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자들의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았던 대외그룹 채의승회장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릴적 꿈을 실행에 옮겨 전세계 80개 교회건립을 마친 신사도행전적 간증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도

전과 감동을 주었다.

전 세계에 12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대표가 되기까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다고 고백한다.

이러 마이클조 선교사가 방송 이후의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전율하고 말았다. 눈물겨운 스토리가 지난해 1월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마이클조

의 간증에 마음을 빼앗긴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선교회 사무실이 세들어 살던 건물이 경매되어 거리로 나갔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한 기업인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신을 돕고 싶다' 그리고서 500억 가까운 후원을 받게 되었고 마이클 조는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출연 그 이후'의 은혜로운 간증들은 뉴스레터를 통해 계속 연재할 계획이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새롭게 하소서' 출연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혜와 감동을 다시금 확인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하소서' 명예대사 전국협의회 준비위원 위촉식(준비위원장 송경호)도 가졌다.

한편 CBS는 올 가을 '새롭게 하소서' 출연자와 시청자가 만나는 '제1회 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감동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교후원 스토리 이분학 권사

평생 모은 돈, 기쁨으로 헌금

인천의 한 오래된 아파트 이분학 권사의 집. 난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듯 집안 전체에 냉기가 감돈다. 귀한 손님 오셨다며 안내한 방에는 키 낮은 서랍장 2개와 '새롭게 하소서'가 방송되고 있는 오래된 TV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 차가운 작은 방에서 이분학 권사는 평생 모은 돈을 CBS기독교방송에 헌금하겠다는 노려며 하얀 봉투를 챙기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나오는 돈 50여만원 중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기독교방송 선교헌금 등을 제하고 남는 돈은 2만원~5만원. 이 돈으로 한 달을 난다.

머리 자르는 비용 3천원을 아끼려 뒤로 묶어 빠져나오는 머리만 직접 가위로 뺄 뺄 자르시고, 난방을 하지 않고 한겨울에도 직접 손바느질한 덧신과 두터운 옷으로 겨울을 나며 차비를 아껴 헌금하려고 서대



문에서 동대문을 걸어 다녔다는 이분학 권사님.

방송국으로 출발하기 전, 문을 잠그지 않는 권사님께 문단속을 권하니 서랍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 십 여 장을 보여주며 "이게 내 전 재산이야, 가져갈 게 있어야 가져가지"라며 집을 나선다.

CBS를 통해 은혜 받았고, CBS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지길 매일 기도하신다는 권사님이 방송국에 도착해 기쁜 일 굴로 건넨 하얀 봉투에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게 돼 감사합니다-인천에서 이분학 권사'라고 적혀있었다. 하얀 봉투 안에는 권사님이 평생 모은 소중한 '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분학 권사님을 통해 낮아지게 하시고 신앙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CBS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CBS 동역교회가 되어 주세요

이제는 선교사 파송의 개념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방송선교는 선교사 파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CBS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도들에게 위성을 통한 복음전파, 각국 현지어 자막방송, 선교전략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복음방송 설립 지원 등을 목표로 '전 세계 복음화 지도'를 완성시켜 나가려합니다.

한 국가를 선교지로 품고 선교사보다 한발 앞서 파송되는 CBS 동역교회로 참여해 주십시오.

■ 참여안내 : 02-2650-7004

CBS 선교후원 안내

"가라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BS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는 복음을, 지친 영혼에게는 안식을, 크리스천에게는 기쁨을 방송전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선교후원금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집니다.

● CBS선교후원회 온라인 은행 계좌

- ◇국민은행 884201-04-058501
- ◇우리은행 212-001999-13-045
- ◇농협 358-17-000404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CMS는 매달 정하신 날짜에 정하신 금액을 CBS에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ARS 후원전화 060-808-0000
- CBS 선교후원회 홈페이지 <http://love.cbs.co.kr>
- CBS 선교후원 안내전화 02-2650-7004

CBS 선교후원센터 오픈

한국교회와 함께 해온 CBS가 선교후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CBS의 힘입니다.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방송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찾아가는 선교후원센터 전화는 02-2644-6651-3번입니다.